

# 고쿠부 나오이치(国分直一)의 일본문화 기원론\* -‘문화전파’와 ‘민족이동’의 관점에서-

關根英行\*\*  
sekine@gachon.ac.kr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민족이동 수용의 학술적 계기 |
| 2. 학문적 배경과 연구의 궤적   | 4.1 남방 왜인설         |
| 3. 문화전파에서 민족이동으로    | 4.2 혼혈설과 이중구조 모델   |
| 3.1 민족이동이 결여된 전기 연구 | 5. 민족이동과 도리이설의 외면  |
| 3.2 민족이동을 수용한 후기 연구 | 5.1 학제적 접근         |
|                     | 5.2 복합적인 문화계통      |
|                     | 6. 마치며             |

主題語: 고쿠부 나오이치(Kokubu Naoichi), 도리이 류조(Torii Ryuzo), 민족기원론(ethnogenesis), 일본문화(Japanese culture), 일본인(Japanese people), 문화전파(cultural diffusion), 민족이동(migration), 타이완(Taiwan)

## 1. 들어가며

필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문화의 기원으로서의 남방계 문화연구에서 과거의 동화정책이 남긴 후유증으로 인하여 남방민족의 ‘민족이동(migration)’은 외면된 채 ‘문화전파(diffusion)’ 차원으로 학설이 구상된 모습을 살펴본 바 있으며 양자 사이에는 인식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해 왔다. 즉 패전으로 동화 이데올로기가 무용지물이 되자 일본민족과 아시아 민족 간의 혈연관계가 예상되는 ‘민족이동’은 오히려 위험한 사상으로 부정되었고, 문화의 계통관계만을 예상하는 ‘문화전파’를 설명원리로 채택하게 되었던 것이다.1) 이는 전후의 일본문화 기원론에서 아시아 민족들과의 혈연적 계통관계를 예상한 학설이 침략을 정당화

\* 이 논문은 2012년 가천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GCU-2012-R243)

\*\* 가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1) 세키네 히데유키(2009) 「일본문화의 원류로서의 남방계 문화연구-‘전파’와 ‘민족이동’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접근-」 『日本文化研究』 제30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403-429

하는 언설로서 금기시되는 풍조가 조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전전(戰前)의 대표적인 일본민족 기원론 연구자 도리이 류조(鳥居 龍藏, 1870~1953)는 아시아 여러 민족과 일본민족의 계통관계를 ‘민족이동’을 전제로 고찰했지만<sup>2)</sup> 전후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오카 마사오(岡 正雄, 1898~1982)나 사사키 고메이(佐々木 高明, 1929~)는 주로 ‘문화전파’의 관점에서 학설을 구축했다.<sup>3)</sup>

여기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타이완에서 타이베이 제국대학(臺北帝國大學)의 창립기부터 패전까지 우쓰시카와 네노조(移川 子之藏, 1884~1947)<sup>4)</sup>나 가나세키 다케오(金関 丈夫, 1897~1983)<sup>5)</sup> 등과 함께 타이완 고고학 및 민족학의 기초를 구축하고, 귀국 후에는 2000년대까지 남방계 문화를 중심으로 일본민족문화의 기원연구를 주도한 고쿠부 나오이치(国分 直一, 1908~2005)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그가 일본문화 기원론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그도 역시 오키나 사사키와 같은 존재구속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쿠부의 일본문화 기원론은 1949년에 귀국 후 사망하기 한 해 전인 2005년까지 이루어졌으며 최초의 것은 1970년의 『일본민족문화의 연구』이며, 일본민족문화 연구로서 정리된 마지막 저서는 1995년의 『동아시아 지중해의 길』이다. 본고에서는 ‘민족이동’을 수용 여부를 기준으로 고쿠부의 오랜 연구를 1970년 중엽을 분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하, 고쿠부의 학문적 배경과 연구의 궤적을 살펴본 다음에 그가 ‘민족이동’을 부정했던 전기 연구와 ‘민족이동’을 수용했던 후기 연구를 살펴보고 고쿠부의 일본민족 기원론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세키네 히데유키(2011)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일본민족 기원론에서의 남방계 민족-민족이동의 관점에서」 『日本文化研究』 제40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57-279

3) 세키네 히데유키(2011) 「오카 마사오(岡正雄) 일본 민족문화 기원론의 성립과 그 특징-‘민족이동’의 관점에서」 『日本文化研究』 제37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49-275; 세키네 히데유키(2011)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오키마사오(岡正雄)의 일본민족기원론-‘문화전파’와 ‘민족이동’의 관점에서」 『동북아문화연구』 제2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557-575; 세키네 히데유키(2012) 「사사키 고메이(佐々木高明)의 일본문화 기원론-‘문화전파’와 ‘민족이동’의 관점에서-」 『日本文化研究』 제4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411-433

4) 민족학자, 인류학자. 1914년에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1917년에는 하버드 대학의 철학박사의 학위를 획득. 귀국 후에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 문학과 강사, 도쿄상과대학(현 히토즈바시 대학) 교수가 되고 1928년에 타이베이 제국대학이 설립되면, 문정(文政)학부 교수로서 초대되어 토속학과 인종학을 맡아 타이완 원주민과 태평양 남도 민족을 연구했다.

5) 교토대학 의학부의 조수시대에 인류학의 연구에 착수. 타이베이제국대학 교수(1936), 규슈대학 교수(1950). 전후, 규슈대학에 부임 후에는 주로 일본인의 기원을 주제로 서일본(西日本) 각지의 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 2. 학문적 배경과 연구의 궤적

고쿠부는 1908년 4월, 도쿄에서 태어났으나 그 해 10월, 부친의 전근에 따라 타이완 다거우(打狗, 현 카오슝시[高雄市])로 이동하였다. 타이페이 고등학교 시절에 타이완 산지와 고산족에 대한 민족학적 관심을 가졌으며, 1930년에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에 입학하여 당대의 저명한 사학자들의 강의를 청강했다. 그는 청강했던 교수 중 인상에 남은 선학으로 니시다 나오지로우(西田直二郎, 1886~1964)<sup>6)</sup>,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 1871~1939)<sup>7)</sup>,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 1902~1971)<sup>8)</sup> 등의 사학자들과 하마다 고사쿠(浜田耕作, 1881~1938)<sup>9)</sup>,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1893~1983)<sup>10)</sup>, 스에나가 마사오(末永雅雄, 1897~1991)<sup>11)</sup> 등의 고고학자들을 들고 있다.<sup>12)</sup>

학생 시절의 고쿠부는 좌익운동에 참여하여 비밀문서를 보관하기도 하였으며, 졸업 후에도 특고(特高)에 쫓기게 되었다. 그의 신변을 걱정한 은사의 배려로 1933년 타이완에 돌아가, 남부의 고등여학교 교사가 되자마자 당지에서 민속조사에 착수하였다. 당지에서 선사시대의 폐촌이 잇따라 발견되어 타이베이에서 우쓰시카와, 미야모토 오부히토(宮本延人, 1901~1987)<sup>13)</sup>와 가나세키가 내려와 함께 폐촌의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이것이 고쿠부의 고고학 연구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 당시부터 타이완 남부의 헤이호족(平埔族)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 6) 교토제국대학교수. 전후 퇴관 후, 시가대학, 교토여자대학교수를 역임. 영국에서 사회인류학을 공부하여 교토대학 사학과 국사학 전공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학풍을 확립하여 전전의 「교토학파」의 하나의 학문적 전통이 되었다.
  - 7) 역사학자. 고고학, 민속학도 받아들인 연사연구를 추진하였다. 문부성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에 종사하여 교토제국대학에서 교수를 역임. 독자적인 일본민족 성립론을 전개하고 일본민족의 형성사에 대해 역사학 고고학의 입장에서 많은 가설을 제시했다. 한편 일선동조론자로서 한일병합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8) 교토제국대학 국사학과 졸업. 교토제국대학 강사, 해군교수 등을 거쳐 도시사(同志社) 대학 교수, 오사카 시립 박물관장 등을 역임. 전문은 고대한국사, 일본고대사, 신화학. 민족학이나 민속학의 성과를 수용해 일본과 한국의 고대학, 비교신화학의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 9) 도쿄제국대학 졸업. 유럽 유학 후 교토제국대학 고고학 연구실 초대교수로 취임하여 고고학의 「교토학파」를 형성. 일본 고고학에 유럽의 고고학 연구방법을 접목시켜 중국 및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유적을 조사하였다. 「일본 근대고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진다.
  - 10) 동양고고학자. 교토대학 명예교수. 일본 고고학의 기초를 만들었다. 하마다 고사쿠에 사사하고 오랜 동안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과 중국에서 고고학의 연구에 종사하여 공적을 남겼다.
  - 11) 간사이 대학 명예교수. 교토제국대학의 고고학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서 하마다 고사쿠를 사사했다.
  - 12) 国分直一(1976) 『環シテ海民族文化考』慶友社, pp.2-3
  - 13) 1928년에 게이오기주쿠대학 문헌부 사학과를 졸업한 뒤 대만으로 건너가 타이베이 제국대학에서 민속학의 강사를 하면서 타이완 원주민의 연구를 하고 현재의 타이완 원주민에 관한 학문적 기초를 구축했다. 1943년 경성제국대학 조교수에게 취임하였다가 전후, 타이완 대학의 교수를 맡아 1948년에 귀국하여 도카이대학(東海大學) 교수를 역임했다.

고쿠부의 연구의 많은 부분은 1941년에 가나세키가 창간 및 주재한 『민속타이완(民俗臺灣)』에 실렸다. 1943년에는 타이베이 사범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타이완 중북부의 선사유적을 조사했다. 이때부터 가나세키 연구실에 자주 출입하여 둘은 각별한 사이가 되어 평생 연구활동을 함께 하였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고쿠부는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타이완성(臺灣省) 편역관(編訳館)으로 유용(留用)되고 가나세키나 미야모토와 함께 자료 정리나 발굴을 실시했다. 1947년에는 타이베이 제국대학이 후신인 국립 타이완대학(臺灣大學) 문학원 사학과계(史學科系) 부교수로 초빙되었다.

1949년에는 귀국하여 가고시마현(鹿兒島縣)의 고등학교 교사(1951), 농림성 수산강습소 조교수(1954)를 거쳐 도쿄교육대학 문학부 교수(1967), 쿠마모토대학(熊本大學)대학 교수(1972), 바이코조가쿠인대학(梅光女學院大學)의 종신 교수(1974)가 되면서 1997년에 89세로 최종강의를 마쳤다. 그 사이에 1974년에서 1987년까지는 잡지 『에토노스(えとのす)』의 편집 및 주간을 담당하여 일본문화 형성과 민족사를 기획하면서 많은 일본문화 기원론 관련 저작들을 발간하였다.

이처럼 고쿠부는 제국의 식민지에서 태어나 패전 후 귀국한 전형적인 인양자(引揚者) 입장에 있는 연구자였다. 학창시절을 제외하고 41세에 귀국할 때까지 청년시대의 대부분을 타이완에서 보낸 그의 경험에서 남방계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남다른 애착이 짐작된다.

또한 서구의 연구방법에 조예가 깊고 아시아적인 시각을 가진 1930년대를 대표하는 연구자와 접했던 경험은 그의 시각을 아시아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특히 교토제국대학의 동문이자 타이완 시절부터 평생 연구 활동을 함께했던 가나세키에서 받은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창시절 학생운동을 하여 정부 당국에서 지목당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협력자로 활동한 연구자가 적지 않는 가운데 그의 반(反)제국주의 성향은 특별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직장을 전전한 경력에서 특정한 조직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96세의 만년까지 묵묵히 학문 활동을 계속한 모습에서 외골수적인 성격과 학문에 몰두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학구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

### 3. 문화전파에서 민족이동으로

#### 3.1 민족이동이 결여된 전기 연구

타이완 시절의 고쿠부는 대만원주민이나 동중국해 연안문화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일본문화의 기원연구로 전환한 것은 1949년 4월, 중화민국 통치하에 놓여 있던 타이완에서 귀국한 후였다. 그의 의하면 그 계기가 된 것은 귀국 직전인 2월 『민족학연구』에 게재된 「일본민족=문화의 원류와 일본국가의 기원」 심포지엄 기록<sup>14)</sup>이었다고 한다. 이에 감동을 받은 그는 귀국 후부터 1970년까지 주로 남방계 문화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의 기원연구를 추진했는데 그 글을 모은 것<sup>15)</sup>이 『일본민족문화의 연구』(1970)였다. 그 머리말에는 그의 ‘민족 이동’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일본열도는 동아시아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홍적세(洪積世) 시대에는 대륙과 열도기구를 연결하는 육교지대를 통하여 열도 지구가 해협에 의해 고립되고 나서는 주행(舟行)으로 동아시아의 각종 종족문화가 유입, 중층, 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열도지구에 등장한 각종 종족문화는 남북에 걸친 큰 확산과 장대한 시간의 깊이 속에서 생태학적 상황과의 깊은 관련성을 지니며 새로운 모습을 지닌 문화복합으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형성된 일본 민족문화를 돌이켜보고 규명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끝없이 흥미로운 일이다.<sup>16)</sup>

위와 같이 일본 민족문화 형성은 홍적세에는 육지를 통해, 대륙과 단절된 후에는 주행을 통해서 여러 종족문화가 일본열도에 전파되어 생태학적 영향을 받으면서 융합되고 형성된 것이라 파악되고 있다. 즉 여기에서는 일본문화의 형성이 어디까지나 ‘문화전파’의 시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족이동’까지는 고찰이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고쿠부는 선사시대에 대륙에서 일본열도로 전파된 종족문화 경로로서 ‘시베리아’·

14) 石田英一郎・岡正雄・八幡一郎・江上波夫(1949) 「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國家の形成:對談と討論」 『民族學研究』 第13卷 第3号 日本民族協會, pp.207-277, 1948년 5월, 4, 5, 6의 3일간, 도쿄 간다(神田)의 찻집에서 주고받은 논의의 속기록을 발표한 것.

15) 고쿠부는 자신의 일본민족 기원론이 남방계 문화에 편중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귀국 후 새로운 출발은 했지만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중국해 남부 영역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 범위를 서남일본을 포함한 중국해 북부 영역으로 확대는 결과가 되었다. 『일본민족문화의 기원』이란 제목을 붙이면서도 거론된 주제가 서남일본에 치우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国分直一(1970) 『日本民族文化の研究』慶友社 p.2

16) 같은 책, p.1

‘한반도’·‘남도(南島)<sup>17)</sup>’를 설정하여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문화요소를 들고 있다. 우선 시베리아 경로에 관해서는 구석기 시대에 시베리아와 일본열도 사이에는 석인(石刃)이나 석핵(石核)이, 온난화에 의해 해협이 생긴 시기에는 도해 기술이 전파되었다고 한다. 조몽시대 전기(약 7,000~5,500년전)의 생활은 아무르강 유역의 채집과 어로민(漁撈民)의 정착생활과의 유사성이 확인된다고 한다. 이후 ‘오호츠크 문화’가 북태평양연안의 어로 해수(海獸)문화가 홋카이도 동부 연안이나 치시마(千島)에 걸쳐 전파되었다고 한다.<sup>18)</sup>

다음으로 한반도 경로를 통해서 전파된 문화요소는 우선 조몽시대 전기에는 규슈 서부 해안의 ‘소바타(曽畑)식 토기<sup>19)</sup>와 한반도의 유문토기(有文土器) 사이에 계통관계가 확인되고 있으며 패총에서 수골(獸骨)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문화가 수렵어로민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또한 조몽시대 만기(약 3,300~2,800년 전)의 문화요소로서는 북서 규슈에서 한반도 남부에 걸쳐서 발굴된 흑요석 석기와 지석묘를 들 수 있다고 한다.<sup>20)</sup>

마지막으로 남도 경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남도의 선도기문화는 사슴 뼈나 타제석부 등의 누경어로문화(耨耕漁撈文化)였으며 조몽 후기(약 4,500~3,300년전)에서 만기의 토기는, 규슈 기술의 영향을 받은 ‘북부 오시마 서지역(北部大島嶼地域)’, 독자적으로 발전한 ‘아미미 오키나와권(奄美沖繩圈)’, 남방 기술의 영향을 받은 ‘남부권’의 세 가지 문화권으로 분류된다. 석기는 선사시대에 북방에서 전파된 작은 것과 인도네시아나 폴리네시아에서 전파된 목공이나 누경(耨耕) 용의 큰 것으로 분류된다. 그 외에 인도네시아-폴리네시아의 영향을 받은 끌기, 필리핀-인도네시아-폴리네시아-타이완 서해안과 계통관계가 있는 패기(貝器),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연(燕)나라의 명도전(明刀錢)<sup>21)</sup> 등을 들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문화전파’ 양상의 설명 과정에서 문화의 운반자에 대해 언급한 경우는 시베리아 경로로 전파된 오호츠크 문화의 운반자인 에스키모나 알류트족(Aleut)뿐이다. 게다가 그 민족도 홋카이도 동부 해안에 유적을 남긴 채 사라진 것으로 생각되므로<sup>23)</sup> 현대 일본인과는 관련

17) 류큐열도(琉球列島)를 가리키는 역사용어\ 남도어족(南島語族)은 오스트로네시아어족(Austronesians)의 번역어로서 그 범위는 타이완으로부터 동남아시아 도서부-태평양 섬들-마다가스카르에 이른다.

18) 같은 책, pp.16-22

19) 잘잘한 글자자세한 선으로 꾸며진 특징이 있는 토기. 오키나와(沖繩)나 부산 등에서도 출토 일본열도의 토기 중에서는 이처럼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토기는 없다. 소바타 패총은 한국의 줄문토기의 영향을 받았다. <http://kumamoto-rekishi.seesaa.net/article/193581957.html>(검색일, 2010. 7.10)

20) 같은 책, pp.23-26

21) 청동 도자(刀子)를 본떠서 만든 도자형 동제화폐로 중국 허베이성(河北省)과 한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전국시대 초기 연나라 때 주조된 화폐.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7m3233a>(검색일, 2010. 8.10)

22) 같은 책, pp.27-63

이 없는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고쿠부는 고고학적 성과를 중심으로 여러 문화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만 문화의 운반자로서의 인간 집단에 대한 인식이 결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3.2 민족이동을 수용한 후기 연구

남방민족이 일본열도로 이주한 것에 관해서는 다른 연구자에 앞서 이미 70년대의 중엽부터 언급하고 있다. 장강유역을 기점으로 하는 왜인이 동중국해 연안부에서 한반도 북부의 연안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거주하여 어로와 벼농사를 경영하고 있었으며 그 영향이 일본 열도까지 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예를 들어 『일본문화의 기원』(1992)에서는 고쿠부가 인간의 이동과 일본어의 형성을 중심으로 일본문화 기원론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족이동’이 일본문화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로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우선 그는 일찍이 타이완 선사시대 주류문화의 원류를 중국 화남(華南)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sup>24)</sup>에 근거해 남도어족, 즉 오스트로네시아어족(Austronesians)의 원향(原鄉)도 화남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일본어의 기층에는 먼저 남방계 민족인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그들을 조몽인(繩文人)이라고 부른다. 거기에 조몽시대 만가야요이시대·고분시대에 걸쳐 한반도를 경유해서 퉁구스어·만주어 계통의 집단이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전자는 ‘남방계 몽골로이드’, 후자를 ‘북방계 몽골로이드’로 파악할 수 있는데 양자가 혼합되면서 일본어가 형성되었다. ‘북방몽골로이드는 문화수준이나 조직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남방몽골로이드의 언어에서 많은 요소를 수용하였지만 문법체계는 자신들의 것을 유지했다.

중국 화남 및 인도차이나 북부의 신석기시대인은 오키나와 본도 남단의 조몽인과 형질적으로 유사하다. 이는 대륙·한반도·일본열도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던 뷔름(Würm) 빙기<sup>25)</sup>에 남방계 몽골로이드가 당시 대륙봉이었던 현재의 동중국해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북상하여 일본열도 북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남방계 몽골로이드는 나중에 일본열도로 도래한 북방계 몽골로이드와 혼혈했을

23) 같은 책, p.21

24) 타이완 원주민의 문화 속에는 월계(越系)문화, 동성문화(Dong Son culture)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들의 원향은 화남에서 민(閩) 지역 혹은 인도네시아반도로부터의 영향까지 미친다고 한다. 国分直一(1992) 『日本文化の古層 -列島の地理的位相と民族文化-』第一書房, p.23

25) 약 7만년 전에 시작하여 1만년 전에 종료한 가장 새로운 빙기로서 구석기 시대와 중석기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농경문화와 금속기술 도입, 그리고 정치적 통합을 진척시키면서 민족국가를 형성해나갔다.<sup>26)</sup>

이처럼 90년대 이후, 일본문화 형성의 계기로서 ‘민족이동’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가설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전파’의 양상만을 거론했던 70년대의 견해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지중해의 길』(1995)은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문화전파’와 ‘민족이동’을 고찰한 것인데 거기에서 그는 남방계 문화의 각 문화요소와 그 운반자로서의 민족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찰하고 있다. 우선 그는 동중국해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민족을 ‘원계(越系) 민족, 타이완에 정착한 민족을 ‘오스트로네시아어족(남도어족)’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동이전에서 보이는 일본에 거주했던 민족을 ‘왜인(倭人)’ 및 ‘왜종(倭種)’으로 보았다. 여기서는 모두 ‘문화전파’와 ‘민족이동’이 조화롭게 논의되어 있다.<sup>27)</sup>

## 4. 민족이동 수용의 학술적 계기

### 4.1 남방 왜인설

이처럼 70년대 중엽 이후의 고쿠부는 ‘문화전파’뿐만 아니라 ‘민족이동’까지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 그가 먼저 ‘민족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1974년에 발표한 「해상의 길」<sup>28)</sup>은 문화의 운반자인 인간 집단과 그 ‘민족이동’에 관심을 돌리게 된 논문으로 평가되는데 거기에서는 고쿠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일본열도는 한년 두 가지의 해류가 지나가 여름과 겨울은 거의 180도 방향을 달리 하는 계절풍을 맞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조건은 복잡한 식생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는 동물 군 중에서 인류에 유용하거나 의미가 있는 것을 들어서 인생과의 관련성을 선사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인간의 이동을 생각하기 위해 해류, 계절풍과 교통의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sup>29)</sup>

26) 같은 책, pp.3-41

27) 国分直一(1995) 『東アジア地中海の道』慶友社, pp.1-467

28) 国分直一(1978) 「海上の道-海流・季節風・動物をめぐって-」 国分直一 編 『論集 海上の道』大和書房, pp.6-40 (제28회 일본인류학회 · 일본민족학연합대회 특별강연(1974); 『えとのす』2号(1975); 『環シナ海民族文化考』(1976) 수록)



위와 같이 고쿠부는 해류나 계절풍의 움직임, 해수(海獸)·회유어(回遊魚)의 이동이 인간과 문화의 분포를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해상의 길」은 야나기타 구니오(柳田 国男, 1875~1962)의 같은 제목의 글<sup>30)</sup>에서 딴 것인데 야나기타가 그 글에서 일본인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방향으로 확산되었는가를 고찰하며 그 계기로 ‘개오지<sup>31)</sup>에 대한 매력’을 들었다. 즉 야나기타는 중국을 떠나 어떤 곳에 표착한 사람이 개오지를 발견하여 고국에 돌아가 다시 일본으로 가서 논벼를 전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쿠부는 이러한 가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인간과 문화의 이동을 일으킨 계기에 대해 지목한 야나기타의 착안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sup>32)</sup> 다시 말하면, 고쿠부는 ‘문화전파’에 머물지 않고 문화의 운반자인 인간 집단을 고찰대상으로 포함시킨 야나기타의 시각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가 먼저 초점을 맞춘 것은 ‘왜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학계에서 왜는 일본에 거주한 민족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일본열도에 한정시키지 않고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즉 『산해경(山海經)』, 『론형(論衡)』, 『한서(漢書)』 등에 보이는 왜의 기사를 논거로 왜를 광의로 해석하는 시도가 있었다. 어떤 논자는 왜인은 일본열도에 살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부, 중국 동북지방, 내몽고, 강남지방 및 타이완에서 일본 남부의 섬들에 이르는 지역까지 분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를 분류하면 크게 ‘북방 왜인설’·‘남방 왜인설’·‘한반도 남부 왜인설’으로 분류된다고 한다<sup>33)</sup>

그 중에서 ‘남방 왜인설’에 입각할 경우 일본의 남방계 문화는 왜인에 의해 운반되어 전파되었다는 가설이 성립될 것이다. 고쿠부는 1979년에 「왜와 왜종의 세계」<sup>34)</sup>에서 남방계 문화의 운반자로서의 왜인의 정체에 대해서 ‘북방 왜인설’의 대표자 이노우에 히데오(井上 秀雄, 1924~2008), ‘남방 왜인설’의 대표자 에가미 나미오(江上 波夫, 1906~2002) 그리고 가나세키의 견해<sup>35)</sup>를 실마리로 검토하였다.

29) 같은 글, pp.7-8

30) 柳田国男(2008) 『海上の道』岩波書店, pp.1-375(初版 筑摩書房, 1961)

31) 인도양이나 태평양의 열대, 아열대 지역 등 비교적 따뜻한 연안에 주로 분포한다. 조가비는 둥그스름하고 광택이 있어 도자기와 같은 질감이다. 조가비를 통화로서 이용하거나 장신구나 의식적인 용도에 이용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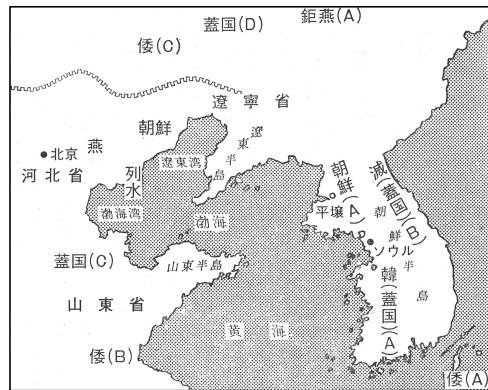
32) 国分直一(1978), 앞의 글, p.6

33) 沈仁安(1990) 『倭国と東アジア』六興出版, pp.16-31

34) 国分直一(1980) 「倭と倭種の世界」『東シナ海の道 -倭と倭種の世界-』法政大学出版局, pp.152-175(요미우리(読売) 신문 1979년 2월 8회에 걸쳐 게재)

35) 타이완에서는 중국해 연한문화에 종사했던 가가세키는 귀국 후 연구주제를 그 연장선상으로 일본민족 문화로 돌려서 우선 『三國志』 『魏志』 등이전에 나온 왜인에 관심을 기울였다. 国分直一 「金闕丈夫 -人と学問」安溪遊地·平川啓治 編(2006) 『遠い空 -国分直一, 人と学問』海鳴社, p.261

왜인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산해경』 「해내북경(海內北經)」에는 주(周)대와 춘추전국 시대에 걸쳐 존재했던 연(燕)과 왜(倭)의 위치 관계에 관하여 “개국(蓋國)은 거연(鉅燕)의 남쪽, 왜의 북쪽에 있으며 연에 속한다(蓋國在鉅燕南倭北 倭屬燕)란 기사가 있는데 종래는 거연의 ‘鉅’자를 ‘크다’는 뜻으로 보고 ‘전연(全燕)’으로 해석하여 <그림 1>의 연(燕)=개국(C)=왜(B)로 보았다. 그러나 이노우에는 ‘鉅’자를 ‘구석’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거연(A)=개국(D)=왜(C)로 보고 왜가 중국 동북지방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1> 『山海經』 현지 비정 그림

출전:井上秀雄(1975) 「中国古典の朝鮮と倭」 国分直一 編 『倭と倭人の世界』 毎日新聞社, p.125

이 견해에 대해 고쿠부는 일본열도 외에도 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의미를 인정하여 다음으로 에가미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후한(後漢) 대에 저술된 『논형』에는 왜인이 ‘창초(鬐草)’, 즉 남방 아시아산의 울금(鬱金, turmeric)을 조공했다는 기사<sup>36)</sup>가 있는데 에가미는 이를 근거로 왜인이 남방계 민족으로써 동중국해에서 널리 교역을 하고 때로는 육지에서 주거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37)</sup>

고쿠부는 왜인설을 광의로 해석한 이노우에설을 평가하면서도 에가미의 ‘남방 왜인설’에 공감했다. 이노우에의 북방기원설을 극복하는 힌트를 가나세키의 언설에서 끌어냈다. 가나세키는 이노우에의 견해, 즉 거연(A)=개국(D)로 보는 시각을 수용하면서도 왜의 위치가 연해부

36) “주대 때 천하태평하며 왜인이 와서 창초를 바쳤다”(周時天下太平 倭人來獻鬐草)(『論衡』「異虛篇」第一八)

37) 일반적으로 에가미는 ‘기마민족설’로 고대 일본 국가의 기원이 북방계 민족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지배자인 일본인은 왜인에 대해서는 ‘광의’로 파악하여 ‘남방 왜인설’에 입각하고 있었다. 세키네 히데유키(2011)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일본민족 기원론에서의 왜인과 한인」 『東아시아 古代學』 제2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p.419

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고 그 범위를 산둥반도에서 북쪽으로는 개국의 남쪽인 라오둥반도(遼東半島)까지, 남쪽으로는 후대의 낙랑군까지로 추정하였다.

이에 고쿠부는 왜가 동중국해에서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에가미의 견해와 왜인이 벼농사와 관련된 어로·농경민이었을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왜의 위치가 만리장성 외변으로 추정하는 이노우에의 견해보다 가나세키의 견해를 지지하였다.<sup>38)</sup> 다시 말하면, 그는 기원전 3세기 이전의 왜인은 동중국해에서 활발하게 교역을 하면서 일본열도뿐만 아니라 발해만(渤海灣)에서 한반도 해변 지역까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나아가서 고쿠부는 『산해경』에 나온 연나라의 속국인 왜와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에 나온 왜종국(倭種國) 즉 일본열도 왜인의 이동경로를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전자는 중국 대륙에서 북상한 ‘동중국해 북변부(北邊部) 경로’에 존재했던 왜이며 후자는 ‘동중국해 외변(外邊) 경로’에 존재했던 왜로 보았던 것이다.<sup>39)</sup> 그러면서 「위지」 동이전에 나온 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즉 “여왕의 나라에서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천여리 가면 여러 나라가 있는데 모두 왜종이다(「女王國東渡海千餘里 復有國 皆倭種」)” 라는 기사의 ‘동쪽’을 ‘서쪽’의 오기(誤記)로 간주하여 여왕의 나라를 고토열도(五島列島), 고시키지마(甌島)열도, 남서제도<sup>40)</sup>와 같이 옛날부터 ‘하야토(隼人)<sup>41)</sup>’로 불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해석하였다.<sup>42)</sup>

요컨대 고쿠부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왜인을 일본열도에 한정시키지 않고 광의적 해석을 수용하여 일본열도의 주민 정도로만 인식되던 왜인에게 남방문화의 운반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에가미와 같이 ‘남방 왜인설’에 입각하여 왜인을 동중국해 주변에서 교역활동을 하면서 일본까지 이동한 민족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처럼 70년대 중엽 이후, 고쿠부가 일본문화 기원론에서 ‘민족이동’을 전제하게 된 계기로는 왜인의 ‘민족이동’에 관한 선행의 연구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8) 国分直一(1980), 앞의 책, pp.154-156

39) 国分直一(1992) 『北の道 南の道 -日本文化と海上の道-』 第一書房, pp.126-127

40) 규슈 남부에서 타이완 동쪽에 걸쳐 접해하고 있는 여러 섬의 총칭.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스미(大隅) 제도, 토카라 열도, 아마미(奄美) 군도, 오키나와 제도, 미야코(宮古) 열도, 아에야마(八重山) 열도, 센가쿠(尖閣) 열도, 조금 떨어져 있는 다이토(大東) 제도가 있다.

41) 고대 일본에서 사쓰마(薩摩)·오스미(大隅)(현 가고시마현)에 거주한 사람들. 풍속습관을 달리하고 자주 야마토(大和) 정권에 반항했다. 야마토 왕권의 지배되면서 율령제에 따른 관직의 하나가 되었다.

42) 같은 책, p.127

## 4.2 혼혈설과 이중구조 모델

고쿠부가 ‘민족이동’을 수용하게 되는 데는 왜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뿐만 아니라 형질인류학의 새로운 학설도 큰 역할을 했다. 앞에서 가나세키는 왜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원래적인 형질인류학 분야의 학설로도 고쿠부에게 영향을 주었다. 귀국 후 가나세키는 문헌에 나온 왜인에 대한 고찰 후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기타규슈(北九州)·아마구치(山口)의 야요이시대 전기의 매장 유적에 착안하여 인골을 수집하였다. 당시의 학계에서는 함경남도의 인골과 기타규슈와 아마구치현 도이가하마(土井が浜)에서 출토된 인골이 유사하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가나세키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대륙에서 북방계 민족이 도래하여 기타규슈뿐만 아니라 간사이(關西) 지방까지 확산되어서 선주민인 조몽인과 혼혈했지만 고분시대(3세기~7세기)에는 오히려 조몽인의 형질로 되돌아갔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혼혈설’이다.<sup>43)</sup>

가나세키가 이러한 견해를 발표한 결과 70년대의 자연인류학계에서는 ‘조몽시대인’, ‘야요이시대인’, ‘고분시대인’으로의 형질변화의 요인에 관한 논쟁이 생겼다. 도쿄대학의 스즈키 히사시(鈴木尚, 1912~2004)는 간토(關東) 지방에서 출토된 인골의 연구를 통해 환경적 요인을 중시한 ‘변형설(또는 소진화설[小進化說])’을 주장하여 규슈대학의 가나세키에 의한 도래설과 대립하고 있었다. 일본인의 기원론이란 관점으로 본다면, 스즈키는 ‘민족이동’을 부정하고 가나세키는 인정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는 ‘변형설’이 우세했다. 그러나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1980년에 「인골에서 본 일본인의 기원」이란 주제로 개최된 일본인류학회·일본민족학회 연합대회에서는 가나세키설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스즈키로 하여금 ‘변형설’, ‘혼혈설’ 모두 옳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하였다.<sup>44)</sup>

이후 형질인류학 분야의 일본인의 기원론에서는 혼혈설이 주류가 되어 갔다. 결국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는 도쿄대학 쪽에서 도래설을 발전시킨 가설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하니하라 가즈로(植原 和郎, 1927~2004)의 ‘초기 일본 이주자수의 추계’ 및 ‘일본인의 이중구조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기원전 3세기에서 7세기에 사이에 일본으로 이주한 도래인의 수를 시뮬레이션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계한 연구<sup>45)</sup>이며 후자는 남방 아시아에 기원을 둔 선주민인 조몽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북방 아시아계 집단이 도래하여 양자가 역사시대에

43) 国分直一(2006) 「金関丈夫 -人と学問」, p.261

44) 分部哲秋(2005) 「内藤芳篤先生」 *Anthropological Science(Japanese Series)* Vol.113, No.2, pp.92-93

45) Hanihara, K.(1987) "Estimation of the number of early migrants to Japan: A simulative study" *Journal of the Anthropological Society of Nippon*, 95, no.3, the Anthropological Society of Nippon, pp.391-403

혼혈됨으로써 현대일본인이 형성되었다는 가설<sup>46)</sup>이다. 이 연구로 도래인(渡來人) 수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작았다는 정설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자연인류학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이나 민속학 등 인접학문분야에 적지 않는 파동을 일으켰으며 고쿠부 역시도 이 학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문화의 고층』(1992)에서 “하니하라가 형질로서 이야기한 ‘일본인의 형성’이라는 말은 나는 언어나 문화로서의 ‘일본민족의 형성’으로 대치하고자 한다”<sup>47)</sup>며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였다.

남도어족(南島語族)의 원향(原鄉)을 화남에서 찾는 것은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특히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되고 있다. 남도어는 현대 일본어의 기층에서도 도출할 수 있다는 언어학 연구 성과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한편에서는 일본의 선사 민족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 조몽인을 남방계 몽골로이드이라는 형질인류학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사시대 일본민족의 기층에서 남방계 몽골로이드를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의 기층으로서 남도어를 생각할 수 있다면, 양자가 공통적인 원류를 지니고 있으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생각된다. 이 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시도한 모색 시론이다.<sup>48)</sup>

위와 같이 조몽인을 남방계 아시아인으로 보는 이중구조모델과 일본어의 기층언어에 남도어가 존재한다는 언어학의 견해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즉 ‘민족이동’에 따른 형질확산과 ‘문화전파’를 병행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는 하니하라의 ‘일본인의 이중구조 모델’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니하라는 조몽인을 남방계, 야요이인을 북방계로 파악했는데 조몽인을 북방계로 보는 논자들이 적지 않는 관계로 양자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는 면이 적지 않다. 한편 고쿠부는 이와 다른 시각으로 야요이인을 모두 북방계 아시아인으로 간주하려는 시각을 수공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나는 남몰래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쥐가 인간의 이동과 관련지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곡물재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수천년 전에 중국남부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쥐가 일본열도에 도래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도작이 전파되는 시기가

46) Hamihara, K.(1991) "Dual structure model for the population history of Japanese" *Japan Review*, 2,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pp.1-33  
47) 国分直一(1992) 『日本文化の古層 -列島の地理的位相と民族文化-』, p.40  
48) 같은 책, p.3

되면서 중국 남부 계통의 야생 쥐가 일본으로 도래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열도에 전래된 벼는 발벼이든 논벼이든 중국 강남에 기원을 둔 것이다. 설령 엔원밍(嚴文明, 베이징대학 교수)이 말한 것처럼 최초의 벼농사 전파가 산둥반도, 요동반도, 한반도의 서남부를 경유했다 할지라도 중국 남부계 생쥐의 전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49)</sup>

위의 글에서 그는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야생 쥐·도작농경의 전파와 ‘민족이동’이 연동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고찰할 때 야요이인의 ‘민족이동’ 경로를 모두 산둥반도, 요동반도, 한반도 서남부, 일본이란 경로만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북방계뿐만 아니라 남방계의 ‘민족이동’ 및 ‘문화전파’도 존재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인 기원론에는 여러 입장이 있으며 그들 사이에 공통된 점뿐만 아니라 엇갈리는 부분이 나 대립된 점이 있지만 이중구조로 보는 입장이 압도적인 것으로 주목된다. 그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모순은 언젠가는 해결될 것”<sup>50)</sup>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5. 민족이동과 도리이설의 외면

### 5.1 학제적 접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쿠부는 70년대 전반까지는 ‘민족이동’을 등한시하였는데 ‘민족이동’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에는 ‘민족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적인 계기가 없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와 관련된 학설을 기피하려는 인식이 개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그가 오카나 사사키처럼 일본문화의 기원을 ‘문화전파’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존재구속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선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환 중국해민족문화고』(1976)에서는 자신이 직접 접한 연구자 외에 오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슈미트(Wilhelm Schmidt)<sup>51)</sup>에게 배운 오카 마사오는 일본 민족문화의 재구성을 진행시키는데

49) 같은 책, pp.44-45

50) 같은 책, p.47

스승인 슈미트보다도 다양한 방법을 구사했다. 오키는 일본 고고학 연구의 성과를 충분히 인용하여 시간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말할 필요 없이 주변 지역의 종족문화와의 대비를 통해서 계통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중략) 민족학과 고고학의 협력관계를 진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네겔더른(Robert Heine-Geldern)에 가깝다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오키의 경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민속학, 신화학, 언어학, 고전연구의 성과도 인용하고 있다.<sup>52)</sup>

이와 같이 일본문화 연구를 위해 고고학과 민족학의 가교 역할을 비롯하여 인접학문의 학제적 접근을 시도한 점을 오키의 업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제적 접근을 사용한 선학으로서 다음과 같이 가나세키도 평가하고 있다.

가나세키가 형질·문화인류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접근방법을 구사하고 남도(南島)의 민족문화사를 진척시키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형질인류학자인 동시에 문화인류학의 여러 분야에 걸친 보기 힘든 연구자였기 때문일 것이다.<sup>53)</sup>

이와 같이 형질인류학과 문화인류학을 모두 구사하고 있는 가나세키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가나세키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 후 의학부 병리학교실의 키요노 겐지(清野 謙次, 1885~1955)아래에서 인류학을, 문학부의 하마다 아래에서 고고학을 수학했다. 또한 자신의 전문분야였던 인류학과 해부학 외에 고고학, 민속학, 언어학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미술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학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세간에서는 ‘가나세키학(金關學)’이라 불리며 많은 지식인을 매료시키기도 했다.

고쿠부는 자신이 지향하는 접근방법을 당시의 서구 접근법을 정리하면서 「고고학연구와 민족학·민속학의 원용」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sup>54)</sup>

필자가 습득하고 싶었던 것은 선사학적 조사에 의해 얻어진 자료의 기능이나 의미를 민족학·민속학지조사 사례를 통해서 파악하여 민족학적·민속학적 데이터의 시간적 깊이를 선사고고학 조사를 토대로 고려해 나가는 방법이었다.<sup>55)</sup>

이와 같이 민족학적·민속학적 데이터를 선사시대의 고고학 조사에 원용하는 방법을 제창

51) 독일출신 민족학자 및 언어학자. 신언회(神言會) 수도사. 단계적 진화론을 비판하여 ‘문화권설’을 제창하여 민족학분야의 빈학파의 기초를 만들었다. 빈대학 철학부 민족학과에서 교편을 잡았다.

52) 国分直一(1976) 『環シナ民族文化考』 慶友社, p.15

53) 같은 책, p.17

54) 같은 책, pp.8-18

55) 같은 책, p.4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70년대 당시 구미에서 새로운 학문적 조류로 부상하고 있었던 ‘민족고고학(Ethnoarchaeology)’과 가깝다고 한다.<sup>56)</sup> 이는 고고학 데이터로 과거를 복원하고 모델이나 가설을 만들 때 전통문화를 지닌 현존 민족을 조사하여 거기에서 얻은 지식을 원용하는 학문이다.<sup>57)</sup>

요컨대 고쿠부는 일본문화연구에서 학제적인 접근의 유효성을 제창하여 그 선구자로서 오카와 가나세키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민족학과 고고학의 원용’이나 ‘형질·문화인류학에 의한 다양한 접근’은 과연 오카나 가나세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미 오바야시 다료(大林 太良, 1929~2001)는 1980년에 “도리이는 일본의 넓은 의미의 인류학에서 위대한 선구자였다. 형질인류학, 고고학, 민족학이라는 넓은 의미의 인류학의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냈으며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주변 민족들의 민족지적 조사는 중요한 업적이었다.”<sup>58)</sup>는 평가를 하고 있다.

나아가 오바야시에 의하면, 도리이는 서남중국 조사 결과, 연구 방법에서는 현장 조사 못지 않게 문헌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연구 분야에서는 인류를 동물로서의 측면보다 인종계도나 민족의 역사적 관계(인종, 체질, 언어, 풍속, 습관, 신화, 전설 등)에 관한 연구분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 연구를 자신의 천직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sup>59)</sup>

실제 도리이는 서남중국 조사 후, 동양사학자인 시라도리 구라키치(白鳥 庫吉, 1865~1942)나 이치무라 산지로(市村 瓊次郎, 1864~1947)등의 문과계 연구자들과 가깝게 지냈다. 뿐만 아니라 도리이는 이과대학의 강사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학회’의 창립을 위해 시라도리를 도와 스승인 쓰보이 쇼고로(坪井 正五郎, 1863~1913)의 감정을 상하게 한 과거가 있다.<sup>60)</sup> 당시의 학계에서 학제적 활동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그만큼 도리이의 학제적 지향성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취적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인류학 분야에서 학제적 연구의 효시는 제2차 세계대전 후만 본다면 오카나 가나세키가 지목될 수 있지만 전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누구보다 도리이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고쿠부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모르지만, 일부러 등한시 한 것이라면, 도리이에게 붙은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6) 같은 책, p.5

57) <http://ja.wikipedia.org/wiki/%E8%80%83%E5%8F%A4%E5%AD%A6>(김색일, 2010. 9.10)

58) 大林太良(1980) 「解説」 鳥居龍蔵『中国の少数民族地帯をゆく』朝日新聞社, p.297

59) 같은 글, pp.301-302

60) 寺田和夫(1975) 『日本の人類学』思索社, p.80



## 5.2 복합적 문화계통

도리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민족이동’에 관한 학설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쿠부는 남방계 문화를 중시했지만 오카의 경우도 일본문화 전체 속에서의 남방계 문화의 비중을 높게 평가한 편인데 고쿠부는 오카의 남방계 민족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높게 평가한다.

아마도 오월(吳越)의 전란기에 연안 주민의 동요로 인해 산동 연안으로 주민이동이 유발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최초로 사사한 사람은 오카 마사오이며 나는 그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sup>61)</sup>

이와 같이 전란으로 인해 오월의 연안에 거주했던 주민이 동요함으로써 산동연안으로의 ‘민족이동’이 일어났음을 최초로 지적한 자가 오카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카의 말을 직접 살펴보고자 한다. 1958년에 발표한 「일본문화의 기초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오월의 멸망은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 후반이었는데 그 때는 한족(漢族)이 남방으로 침공함에 따라 비(非)한족 지역의 동요나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중략) 나는 강남 민족의 동요와 이동의 파동이 서일본이나 한국 남부 지역까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상정이 아니라고 본다.<sup>62)</sup>

이처럼 오카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오월지역에 거주했던 민족의 동요와 이동이 일본으로 문화적 영향을 미쳤음을 제기하고 있는데 과연 오월 민족의 ‘민족이동’을 처음으로 제창한 연구자는 오카였을까?

사실 도리이는 이미 1916년에 「고대의 일본민족」이란 논고에서 일본민족을 구성한 남방계 민족의 ‘민족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의 중국 남부에서는 한민족(漢民族)이 세력을 지니고 있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날의 중국 남부는 인도차이나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인종은 마오족(苗族, Miao) 계통이었다.

61) 国分直一(1975) 「シナ海周辺の文身世界」 国分直一 編 『倭と倭人の世界』毎日新聞社, p.11

62) 岡正雄(1979) 『異人その他 -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国家の形成-』言叢社, p.28 (초판: 岡正雄(1958) 「日本文化の基礎構造」 『日本民俗学の歴史と課題』日本民俗学体系 第2巻, 平凡社)

오(吳)·월(越)·초(楚)와 같은 나라는 마오족 계통 사람들이 발전시켜 세운 나라였다. 북방에서 한민족이 진입한 것은 훨씬 후대이며 한민족이 진입하기 전까지의 중국 남부는 전체적으로 마오족 등의 거처였다. (중략) 일본에도 한민족 진입 전의 중국 남부 민족 혈통이 어느 정도 들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sup>63)</sup>

이처럼 도리이는 중국 남부의 선주민이었던 마오족 계통 민족이 일본열도로 이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오카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오카보다 먼저 도리이가 일본민족의 구성요소로서 오월 민족 내지 마오족계 민족의 ‘민족이동’을 밝힌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일본민족의 관련성에 대해서 먼저 부각시킨 연구자가 도리이라는 지적이 있다. 오바야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도리이의 서남중국 민족 연구가 진전된 결과 일본민족 기원론에서 그들의 문화를 고려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즉 도리이는 『유사이전의 일본』(중보판)에서 일본민족을 형성한 주된 구성요소로서 아이누 외에 북방계인 고유일본인,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민족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인도차이나민족은 화남이 한민족화(漢民族化)되기 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 즉 마오족 계통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인도차이나민족이 가져온 문화로서 동탁(銅鑼), 쌀, 짚신, 나막신, 횡혈묘(橫穴墓), 고상가옥(高床家屋), 왜인의 문신, 여러 개의 신화전설을 들고 있다. 도리이의 이 구상은 후대의 민족학자들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중략) 일본민족문화 형성론의 관점에서 중국 남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을 학계에 심어준 사람은 도리이였으며 최근 그가 뿌린 씨가 개화하여 결실을 맺고 있다. 어쩌면 도리이가 후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영향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서남중국 조사였을지도 모른다.<sup>64)</sup>

이와 같이 도리이는 일본문화 기원론에서 ‘인도차이나민족’ 즉 오카가 말하는 오월 민족의 ‘민족이동’과 이에 따른 ‘문화전파’를 이미 지적하고 있었으며<sup>65)</sup> 오카를 비롯하여 오월계 민족을 일본문화 기원론의 구성요소에 포함시키는 시도는 모두 도리이에게서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쿠부는 오카에 대한 또 다른 평가로서 일본열도로 이주한 집단의 분류에 관해서

63) 鳥居龍藏(1975) 『鳥居龍藏全集』第1卷 朝日新聞社, p.390 (『古代の日本民族』, 1916)

64) 大林太良(1980), 앞의 글, p.302

65) 다만 도리이는 마오족 계통 민족이 “일본 규슈의 변두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 일본민족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본민족 속의 비중을 그리 높게 쳐주지 않고 있다. 鳥居龍藏(1975), 앞의 책, p.441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카는 일본열도에 때를 달리 해서 이동해온 종족문화를 유별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성층(成層) 형성의 관계를 설정했다. 오카 이전에도 일본민족문화 속에서 남방계와 북방계 요소를 찾으려는 견해는 있었지만 오카의 가설은 그 때까지의 막연한 이원설을 극복한 공전의 작업이었다.<sup>66)</sup>

고쿠부는 오카가 기존의 일본문화 기원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북방계·남방계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보다 세밀한 차원에서 문화 계통을 분류한 것을 획기적인 것으로서 높게 평가하였다. 오카는 「일본문화의 기초구조」(1958)에서 ‘종족문화복합’을 설정하였으며<sup>67)</sup> 「일본민족의 종족사적 형성」(1958)에서는 자신이 제시한 ‘종족문화복합’의 운반자인 ‘에토노스(종적)’를 설정했다.<sup>68)</sup> 이처럼 오카의 견해에서는 ‘문화전파’와 함께 ‘민족이동’도 함께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도리이의 견해와 무관하다고 하기가 어렵다. 도리이가 아이누를 선주민으로 삼고 일본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고유일본인(Japanese proper)’, ‘인도네시아인’, ‘인도차이나민족’이라는 세 가지의 집단으로 분류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sup>69)</sup> 이러한 유사성에 대해서 일찍이 오바야시는 “도리이의 구상이 오카의 그것과 상당히 부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합은 양자가 야요이문화를 포함해 그 이후에 상정한 여러 문화복합에서 특히 현저하다.”<sup>70)</sup>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필자는 도리이설과 오카설의 대응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66) 国分直一(1976), 앞의 책, p.15

67) 무토기 문화, 조몬식 토기문화를 토착 문화로 삼고 후대에 일본열도에 도래한 외부에서 전파된 문화로써 ①모계적·비밀결사적·토란 재배식·수렵민 문화, ②모계적·육도재배·수렵민 문화, ③부계적·‘하라’ 씨족적·전작·수렵·사육민 문화, ④남성적·연령계제제적·수도재배·어로민 문화, ⑤부권적·우지 씨족적·지배자문화. 岡正雄, 앞의 책, pp.18-36

68) 우선 토착 문화복합인 무토기 문화, 조몬식 토기문화의 에토노스로서 각각 여명기 채집수렵인, 신석기시대 채집·수렵민을 설정하고 있다. 도래한 각 에토노스로서 ①타로 토란 재배민, ②오스트로아시아계 도작민, ③통구스계 농경민, ④오스트로네시아계 도작민, ⑤알타이계 지배자를 상정하였다. 같은 책, pp.37-47

69) 鳥居龍藏(1975), 앞의 책, p.505

70) 大林太良(1975) 「鳥居龍藏の日本民族形成論」『社会人類學報』vol.1, 東京都立大学社会人類学会, 弘文堂, p.128

<표 1> 도리이설과 오카설의 대응관계

	도리이설(1916)	오카설(1958)	
	민족	에토노스(종족)	문화복합
선주민		여명기 채집 수렵민	무토기 문화
	아이누	신석기시대 채집 수렵민	조몬식 토기문화
①		타로 토란 재배민	모계적·비밀결사적·토란 재배식·수렵민문화
②		오스트로아시아계 도착민	모계적·육도재배·수렵민문화
③	고유일본인(석기시대)	통구스계 농경민	부계적·‘하라’ 씨족적 전작·수렵·사육민 문화
④	인도네시아인	오스트로네시아계 도착민	남성적·年齡階梯制的·수도재배·어로민 문화
	인도차이나민족		
⑤	고유일본인(고분시대)	알타이계 지배자	부권적·‘우지’ 씨족적·지배자문화

출전: 세키네 히데유키(2011)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오카 마사오(岡正雄)의 일본민족 기원론 - ‘문화전파’와 ‘민족이동’의 관점에서-」 『동북아문화연구』 제29집, p.563

이와 같은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카는 도리이와의 학통을 부정해 왔다고 한다.<sup>71)</sup> 고쿠부 역시도 남방계·북방계의 이원론 극복의 효시를 오카에게서 찾았지만 그것은 도리이에 게서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일찍이 오바야시는 그들과 달리 70년대부터 다음과 같이 도리이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우리는 도리이의 구상이 그 후의 학자의 시도와 공통되는 부분이 많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중략) 일본민족 형성론은 오래되고도 새로운 문제이다. 이 문제연구에 종사하는 우리에게 도리이의 선구적 업적은 그 개별적인 연구에서도 전체적인 구상에서도 많은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sup>72)</sup>

오바야시는 도리이야말로 일본민족 기원론의 선구자라 인정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평가는 오카나 고쿠부의 인식이 일면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쿠부에게 있어 오카나 가나세키와 같은 전후 연구자의 학설은 일본민족 및 일본문화 기원연구의 선구적 연구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반면, 도리이에 대한

71) “예전에 오카는 필자에게 자신의 학설을 구성하는데 도리이설의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언급한 바 있다” 같은 글, p.128; “오카는 자신의 구상을 도리이의 학설을 계승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었다.” 大林太良 (1995) 『解説』 岡正雄 『岡正雄 論文集 異人その他 他十二編』 岩波書店, p.275

72) 大林太良(1975), 같은 글, pp.131-132

평가는 결락되어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설령 도리이의 업적에 대해서 언급했다 할지라도 오키나와연구<sup>73)</sup>나 타이완연구<sup>74)</sup>에만 제한시켜 일본민족의 기원론이란 광범한 업적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다.

고쿠부가 도리이에 대한 언급에 인색했던 이유가 물론 도리이에 대한 좁은 학벌의식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카가 도리이와의 학문적 계보를 부정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는데 에가미 역시 자신의 저작에 도리이의 선행연구를 인용하지 않았다.<sup>75)</sup> 필자는 전후에 활동한 연구자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 남긴 후유증’과의 관점에서 고찰한 바 있는데<sup>76)</sup> 비단 도리이가 일선동조론자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의 해외조사가 제국주의적 침략과 연동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전후 학자한테 경원시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민족이동’을 전제로 일본문화 기원론을 제창한 도리이의 학설을 평가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오카가 자신과 도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급했었다면 고쿠부 역시 도리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지 모르지만, 70년대의 고쿠부로서는 당대의 통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고쿠부가 제국주의에 협력하거나 가담했던 오키나 에가미<sup>77)</sup>와는 달리 전쟁 중 좌익 사상에 빠진 반 제국주의자였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82세가 되는 나이에 “나는 천황이 지대한 전쟁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거나 민속학계의 권위자인 야나기 타에 관해서도 “천황에 대해서 매우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한 조사로 천황을 위로하고 싶어 한다.”<sup>78)</sup>며 비꼬아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가나세키로 하여금 “음식, 음료 기호품, 음악, 멋을 내는 것 등에 대해 일체 흥미가 없고 고쿠부만큼 전신전령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은 본적이 없다”<sup>79)</sup>고 평가하게 한 고쿠부의 고집은 그가 제국주의에 가담한 학설을 멀리 하려고 하는데 작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73) “도리이는 일본선사문화연구에서 선구적인 존재였지만 초기에는 남도 선사시대 연구에서도 선구적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国分直一(1972)『南島先史時代の研究』慶友社, pp.21  
 74) 国分直一(2006)『台湾研究者の群像』安溪遊地·平川啓治 編(2006)『遠い空 -国分直一, 人と学問』海鳴社, p.247  
 75) 세키네 히데유키(2011)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일본민족 기원론에서의 왜인과 한인』, p.419  
 76) 세키네 히데유키(2007)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연구와 페러다임』 『민족문화연구』4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89-434  
 77) 1948년의 「일본민족=문화의 원류와 일본국가의 기원」 심포지엄에서도 주요한 논자였던 오키와 에가미는 1943년에 설치된 국책연구소 ‘민족연구소’에서 총무부장과 제2부장의 관계였다.  
 78) 国分直一(2006) 『南島への思い』安溪遊地·平川啓治 編(2006) 『遠い空 -国分直一, 人と学問』海鳴社, pp.283-285; 国分直一(1995) 『東アジア地中海の道』慶友社, pp.339-347; 国分直一(1991) 『鳥居龍藏博士と平埔族』東京大学総合研究資料館特別展示実行委員会 編『乾板に刻まれた世界-鳥居龍藏の見たアジア-』東京大学総合研究資料館, p.15  
 79) 金関恕(2006) 『序』安溪遊地·平川啓治 編『遠い空 -国分直一, 人と学問』海鳴社, p.5

## 6. 마치며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방계 문화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의 기원연구에 종사해온 고쿠부 나오이치의 학설 속에 제국주의 시대의 학설과의 유사성을 피해서 외부 민족과의 계통관계를 간접적인 차원으로 구성하려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국주의시대의 일본에서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민족과 아시아 민족과의 계통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혈연관계를 예상하는 ‘민족이동’을 전제로 학설이 구상되었지만 전후에는 그 반동에 의해 위험한 사상이라며 부정되었고 간접적 계통관계만을 규정하는 ‘문화전파’를 설명원리로 채택하여 학설이 구상되어 온 경향이 있다.

고쿠부는 교토제국대학에서의 수학을 제외하면, 식민지 타이완에서 태어나 가나세키 등과 함께 타이완 고고학의 토대를 구축하여 1949년에 41세로 중화민국 타이완에서 귀국했다. 이후 그는 타이완 시대의 연구를 토대로 남방계 문화를 중심으로 일본민족 기원론을 전개해 나갔다. 1970년 62세 때 그가 출판한 『일본민족문화의 연구』에는 ‘문화전파’만을 전제로 하여 ‘민족이동’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가 ‘민족이동’을 내세울 수 없었던 것은 물론 당시의 자연인류학에서 일본민족이 외부민족과의 혼혈 없이 순수하게 진화해 왔다는 학설이 정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다. 자연과학의 학설에 맞서 인문학에서 ‘민족이동’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고쿠부는 왜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 즉 단순히 일본열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고대인이 아니라 남방 아시아에서 해로를 따라 산둥반도, 발해만, 한반도, 일본열도로 이동한 민족으로 파악하려고 했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자연인류학에서 ‘민족이동’을 뒷받침하는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고쿠부도 이에 상응하다시피 ‘민족이동’을 수용한 입장에서 일본문화 기원론을 재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쿠부의 학설에서는 제국주의 시대의 학설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면이 보인다. 그것은 도리이 류조를 일본문화 기원론의 선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와의 학통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점에서 확인된다. 고쿠부는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일본문화의 문화계통의 복잡성을 강조하지만 그 효시를 도리이에게서 찾지 않고 오키에게서 찾았다. 도리이의 업적은 타이완 연구나 오키나와 연구에서는 찾되 일본문화 기원론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학생시절 좌익사상에 빠진 시절부터 그는 반 제국주의적 지향이 강했으므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의 인식 속에는 제국주의적 학문을 멀리 하려는 사유가 깔려 있었을 것으

로 여겨진다.

그는 일본문화를 구성하는 남방계 문화의 운반자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을 타이완에서는 ‘남도어족(Austronesians)’, 중국대륙에서 ‘월계(越系) 민족’, 일본에서 ‘왜인’ 및 ‘왜종’ 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도리이가 1916년에 제시한 ‘인도차이나민족’과 다름없다. 도리이가 처음으로 제시한 이러한 민족을 주체로 한 문화는 후대에 ‘조엽수림문화론’이나 ‘장강문명론’ 등으로 전개되어 크게 발전하였다. 제국주의 학문이 남긴 휴유증이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학문적 계보관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보는 듯하다.

### 【參考文獻】

세키네 히데유키(2012) 「사사키 고메이(佐々木高明)의 일본문화 기원론-문화전파와 ‘민족이동’의 관점에서-」 『日本文化研究』 제4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411-433

\_\_\_\_\_ (2011)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오카 마사오(岡正雄)의 일본민족 기원론 -‘문화전파’와 ‘민족이동’의 관점에서-」 『동북아시아문화연구』 제2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557-575

\_\_\_\_\_ (2011) 「오카 마사오(岡正雄) 일본 민족문화 기원론의 성립과 그 특징-‘민족이동’의 관점에서-」 『日本文化研究』 제37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49-275

\_\_\_\_\_ (2011)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일본민족 기원론에서의 왜인과 한인」 『東아시아古代學』 제24집, 東아시아古代學會, pp.417-419

\_\_\_\_\_ (2009) 「일본문화의 원류로서의 남방계 문화연구-‘전파’와 ‘민족이동’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접근-」 『日本文化研究』 제30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403-429

\_\_\_\_\_ (2007)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연구와 패러다임」 『민족문화연구』 4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89-434

石田英一郎・岡正雄・八幡一郎・江上波夫(1949) 「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國家の形成.對談と討論」 『民族學研究』 第13卷 第3号, 日本民族協會, pp.207-277

井上秀雄(1975) 「中国古典の朝鮮と倭」 国分直一 編 『倭と倭人の世界』 毎日新聞社, pp.117-138

大林太良(1995) 「解説」 岡正雄 『岡正雄 論文集 異人その他 他十二編』 岩波書店, p.275

\_\_\_\_\_ (1980) 「解説」 鳥居龍藏 『中国の少数民族地帯をゆく』 朝日新聞社, pp.297-302

\_\_\_\_\_ (1975) 「鳥居龍藏の日本民族形成論」 『社会人類學報』 vol.1, 東京都立大学社会人類学会, 弘文堂, pp.128-132

岡正雄(1979) 『異人その他 -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國家の形成』 言叢社, pp.18-47

金関恕(2006) 「序」 安溪遊地・平川啓治 編 『遠い空 -国分直一, 人と学問』 海鳴社, p.5

国分直一(1995) 『東アジア地中海の道』 慶友社, pp.339-347

\_\_\_\_\_ (1992) 『日本文化の古層 -列島の地理的位相と民族文化-』 第一書房, pp.3-47

\_\_\_\_\_ (1992) 『北の道 南の道 -日本文化と海上の道-』 第一書房, pp.126-127

\_\_\_\_\_ (1980) 『東シナ海の道 -倭と倭種の世界-』 法政大学出版局, pp.152-175

\_\_\_\_\_ (1976) 『環シナ海民族文化考』 慶友社, pp.2-18

\_\_\_\_\_ (1972) 『南島先史時代の研究』 慶友社, p.21

\_\_\_\_\_ (1970) 『日本民族文化の研究』 慶友社, pp.1-63

\_\_\_\_\_ (2006) 「台湾研究者の群像」 安溪遊地・平川啓治 編(2006) 『遠い空 -国分直一, 人と学問』 海鳴社, p.247

- \_\_\_\_\_ (2006) 「金関丈夫 -人と学問」安溪遊地・平川啓治 編(2006) 『遠い空 -国分直一, 人と学問』海鳴社, p.261
- \_\_\_\_\_ (2006) 「南島への思い」安溪遊地・平川啓治 編(2006) 『遠い空 -国分直一, 人と学問』海鳴社, pp.283-285
- \_\_\_\_\_ (1991) 「鳥居龍蔵博士と平埔族」東京大学総合研究資料館特別展示実行委員会 編 『乾板に刻まれた世界-鳥居龍蔵の見たアジア-』東京大学総合研究資料館, p.15
- \_\_\_\_\_ (1978) 「海上の道-海流・季節風・動物をめぐって-」国分直一 編 『論集 海上の道』大和書房, pp.6-40 (제28회 일본인류학회·일본민족학연합대회 특별강연(1974); 『えとのす』2号(1975); 『環シナ海民族文化考』(1976) 수록)
- \_\_\_\_\_ (1975) 『シナ海周辺の文身世界』国分直一 編 『倭と倭人の世界』毎日新聞社, p.11
- 沈仁安(1990) 『倭国と東アジア』六興出版, pp.16-31
- 寺田和夫(1975) 『日本の人類学』思索社, p.80
- 鳥居龍蔵(1975) 『鳥居龍蔵全集』第1巻 朝日新聞社, pp.390-505
- 中藺英助(1995) 『鳥居龍蔵伝』岩波書店, pp.1-442
- 柳田国男(2008) 『海上の道』岩波書店, pp.1-375 (初版 筑摩書房, 1961)
- 分部哲秋(2005) 「内藤芳篤先生」Anthropological Science(Japanese Series)Vol. 113, No. 2, pp.92-93
- Hanihara, K.(1991) "Dual structure model for the population history of Japanese" Japan Review, 2,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pp.1-33
- \_\_\_\_\_ (1987) "Estimation of the number of early migrants to Japan: A simulative study" *Journal of the Anthropological Society of Nippon*, 95, no.3, the Anthropological Society of Nippon, pp.391-403
- <http://kumamoto-rekishiseesaa.net/article/193581957.html>(검색일, 2010. 7.10)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7m3233a>(검색일, 2010. 8.10)
- <http://ja.wikipedia.org/wiki/%E8%80%83%E5%8F%A4%E5%AD%A6>(검색일, 2010. 9.10)

---

논문투고일	: 2012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10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0월 25일

---



< 要 旨 >

고쿠부 나오이치(国分直一)의 일본문화 기원론  
- ‘문화전파’와 ‘민족이동’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방계 문화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의 기원론을 전개해 온 고쿠부 나오이치의 존재구속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일제시대의 일본문화 기원론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 민족과 일본민족의 현연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민족이동’을 전제로 구상되어 있었다. 한편 전후는 이러한 학설이 위험한 이데올로기로 간주되면서 ‘문화전파’의 시각만으로 학설이 구상하게 되었다. 1949년에 타이완에서 귀국한 고쿠부는 남방계 문화를 중심으로 학설을 전개해 나갔다. 초기의 학설은 ‘민족이동’의 시각이 배제되었지만 90년대 이후의 학설은 고대 일본인의 혼혈을 인정한 자연인류학의 학설을 수용되면서 ‘민족이동’의 시각에서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쿠부는 전전(戰前) 민족이동을 전제로 일본문화 기원론은 구축한 도리이 류조와 자신의 학통을 인정하는데 인색했다. 사실 그가 강조한 남방계 문화는 1916년에 도리이가 ‘인도차이나민족’으로 제창한 것이다. 제국주의가 남긴 후유증으로 전후 연구자가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볼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A study on Kokubu Naoichi's Ethnogenetic theory of the Japanese People  
- From the Viewpoints of ‘Cultural Diffusion’ and ‘Migration’-

This research aimed at clarifying the constraints of existence of Kokubu Naoichi, who was a typical researcher of the ethnogenetic theory of the Japanese people after World War II. As part of the assimilation policy, ethnogenetic theories of the Japanese people were conceived on the assumption of "migration" in order to specify the blood relationship between Asian races and the Japanese race in the age of imperialism. On the other hand, it was considered that these theories were a dangerous ideology, which is why after World War II ethnogenetic theories of the Japanese people have been made only based on the view of "cultural diffusion". Kokubu, who went back to Japan from Taiwan in 1949, formed a theory focusing on the culture from Southeast Asia. The early theory of Kokubu was formed only from the viewpoint of "cultural diffusion", while the viewpoint of "migration" was eliminated. But during the 1990ies academia started to accept the theory of physical anthropology, which was deeply indebted to the viewpoint of "migration." and thus approved the thesis of ancient Japanese half-breeds. Nevertheless, Kokubu was declining to accept an academic relation with Torii Ryuzo, who had helped to form the ethnogenetic theory of the Japanese people from the viewpoint of "migration" before World War II. Although Kokubu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race from Southeast Asia, in fact, Torii named them simply "Indochinese" in 1916. It is regrettable that postwar researchers have not been able to accept this fact plainly as an aftereffect of imperialism.